

주민등록인구

73,345명

2021. 12. 31. 기준

필요공공시설



전문가 칼럼



과천도시공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도시여행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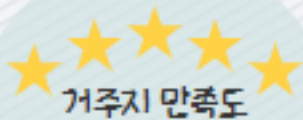


6.3점

지금 우리 동네는

- 2019년, 2021년 사회조사 분석 -

▶ 자세히보기



거주지 만족도

6.4점

경기도 평균 5.7점



바쁨의 정도




필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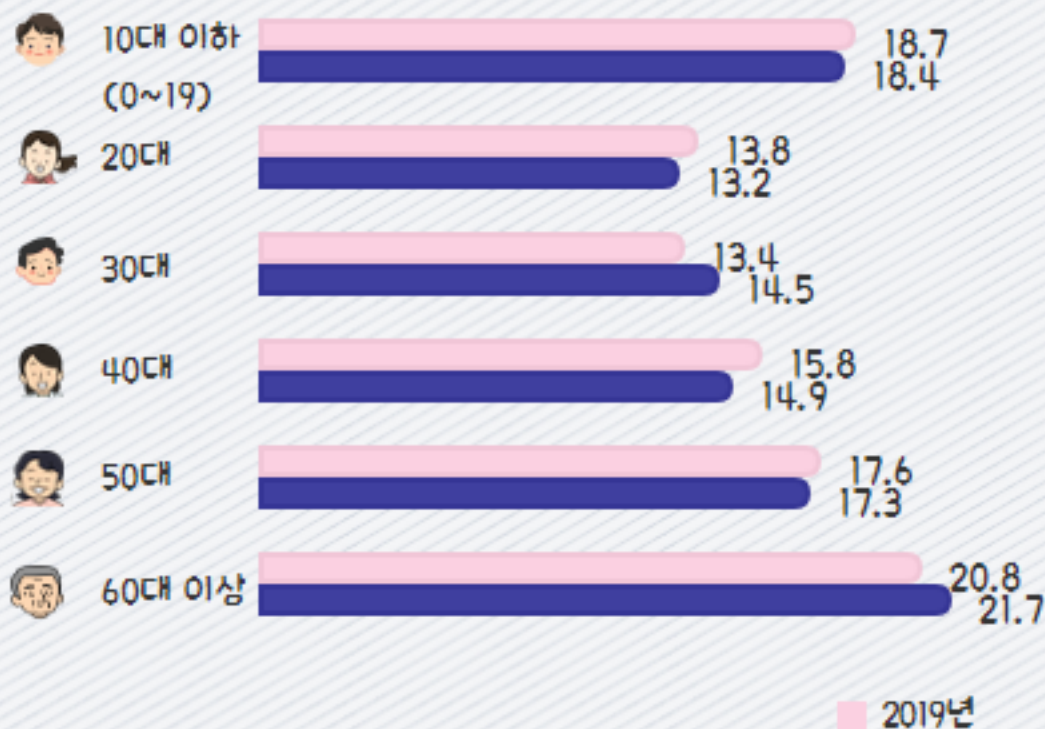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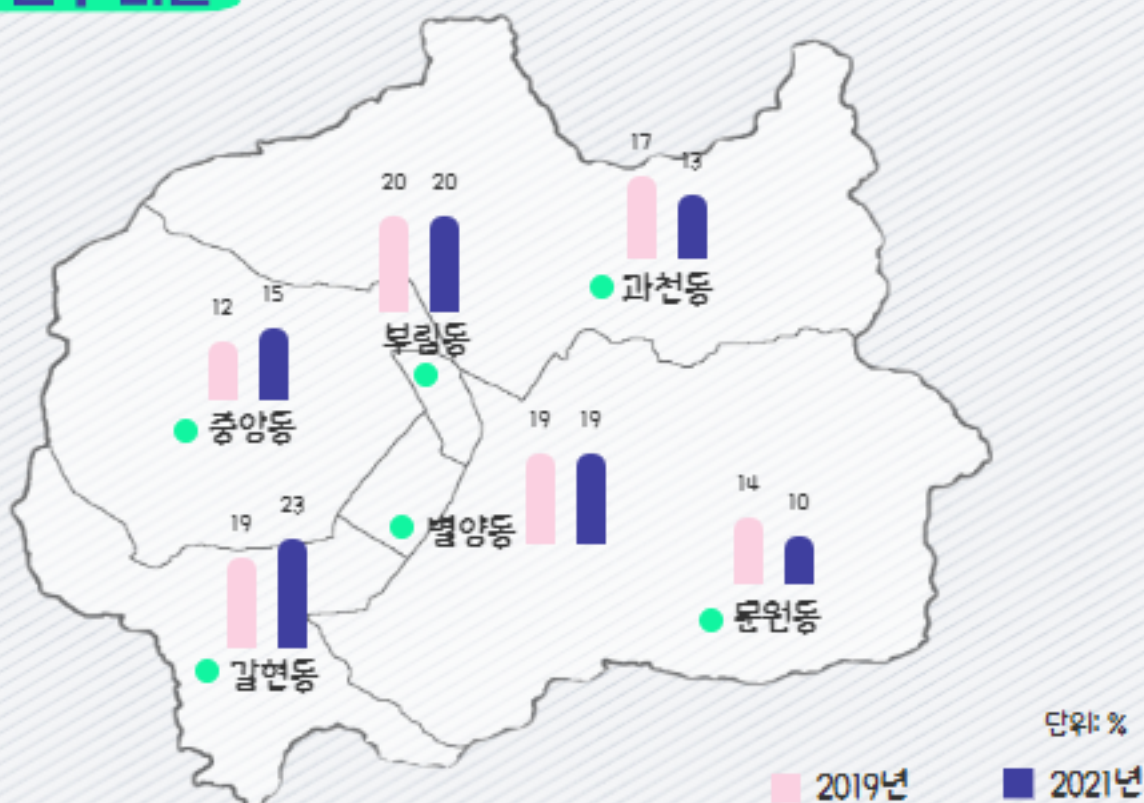
인구의 변화

출처: 과천시, 주민등록 인구현황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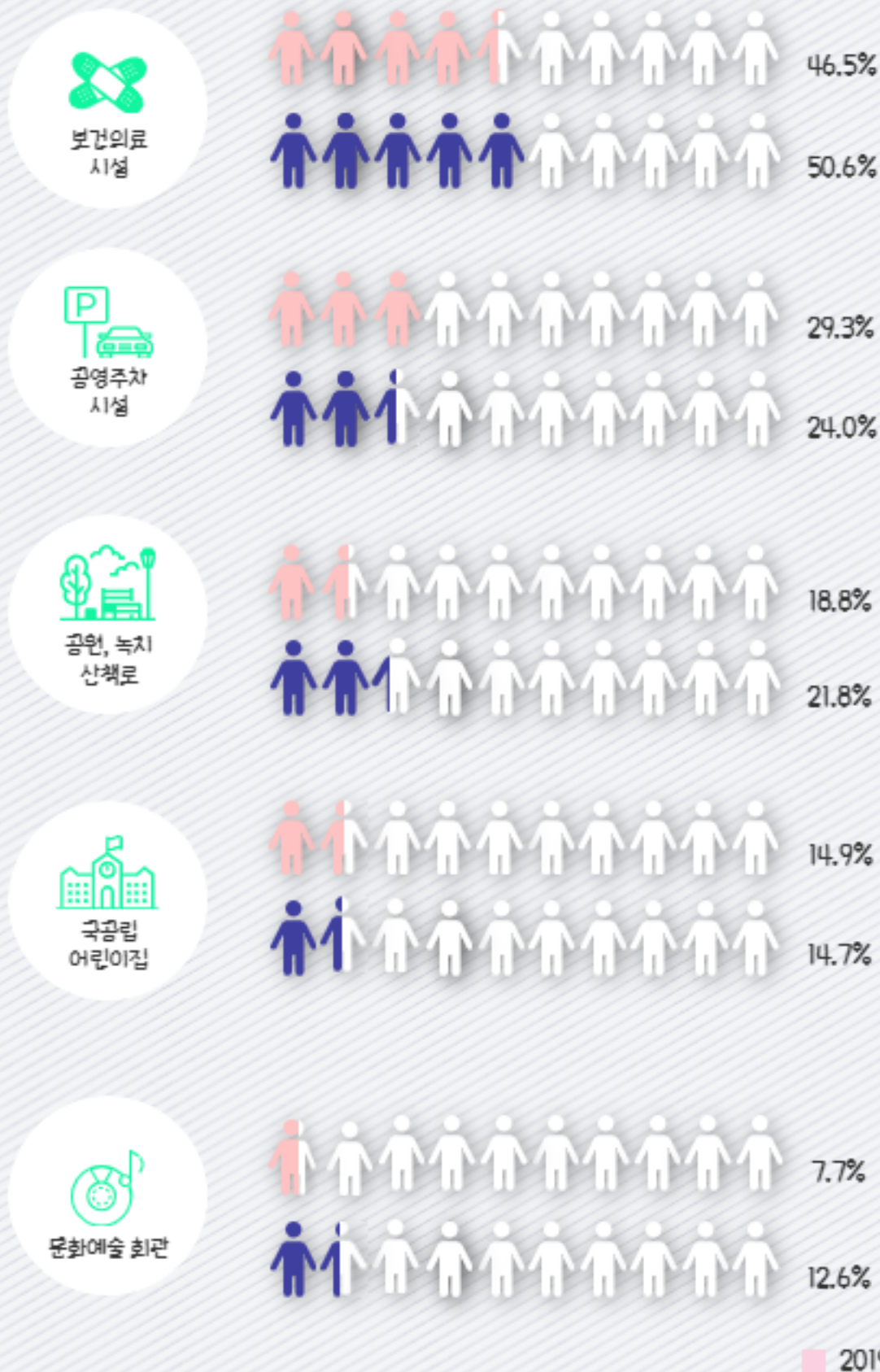


행정동별 인구 비율



필요 공공시설 수요 변화

출처: 2021년 과천시사회조사



얼마나 행복하셨나요

출처: 2021년 경기도사회조사

경기도 행복지수 지도



과천시
6.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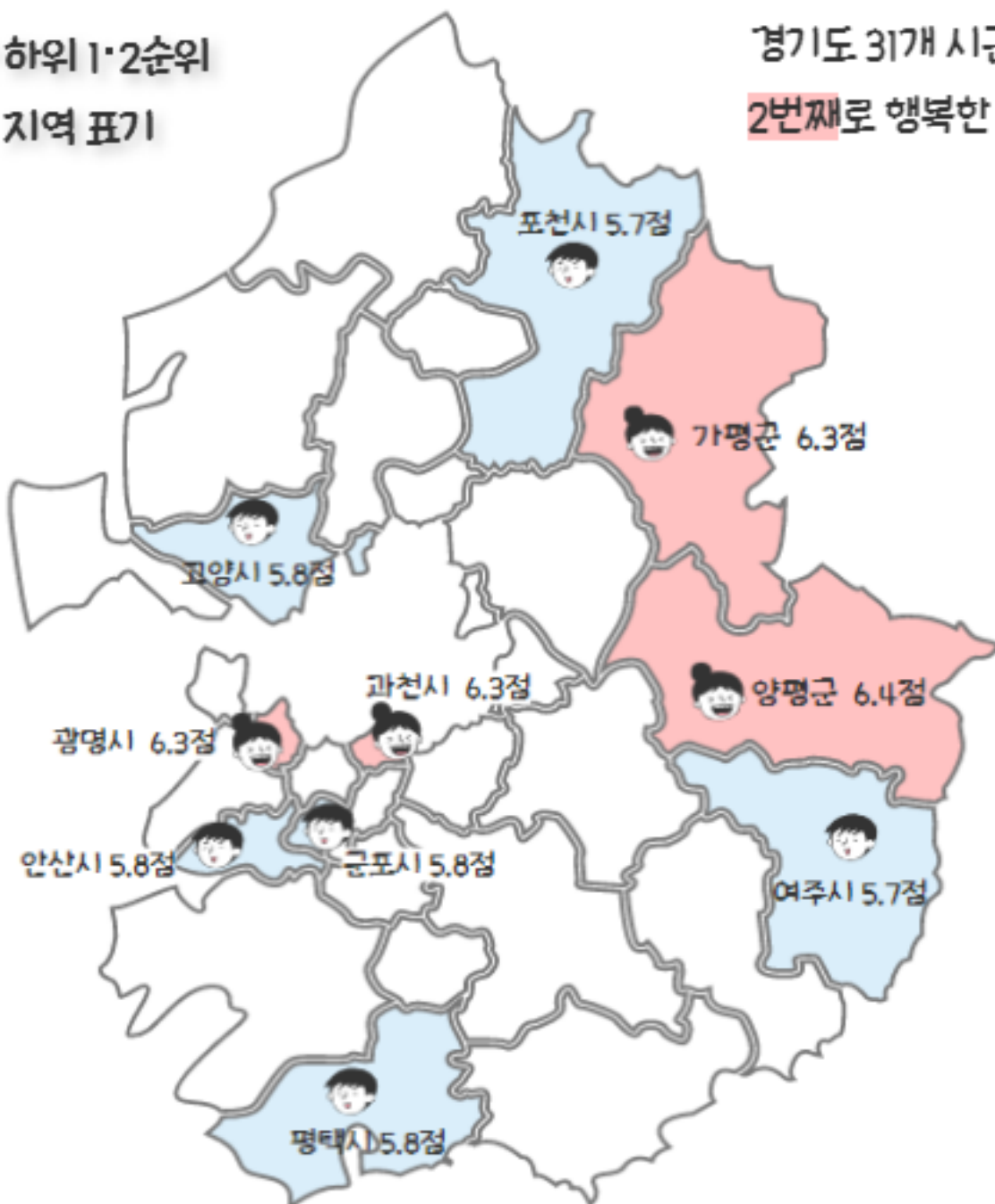


경기도
6.0점

* 0점: 한번도 행복하지 않음
10점: 자주 행복함

상·하위 1·2순위
지역 표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번째로 행복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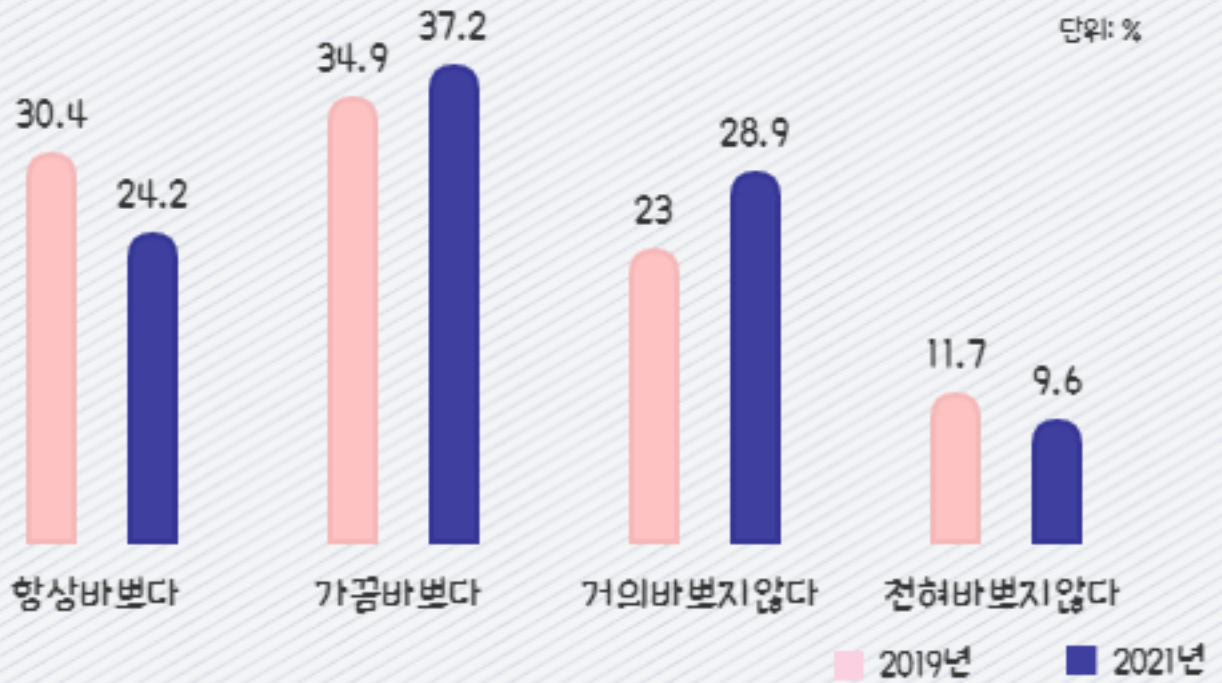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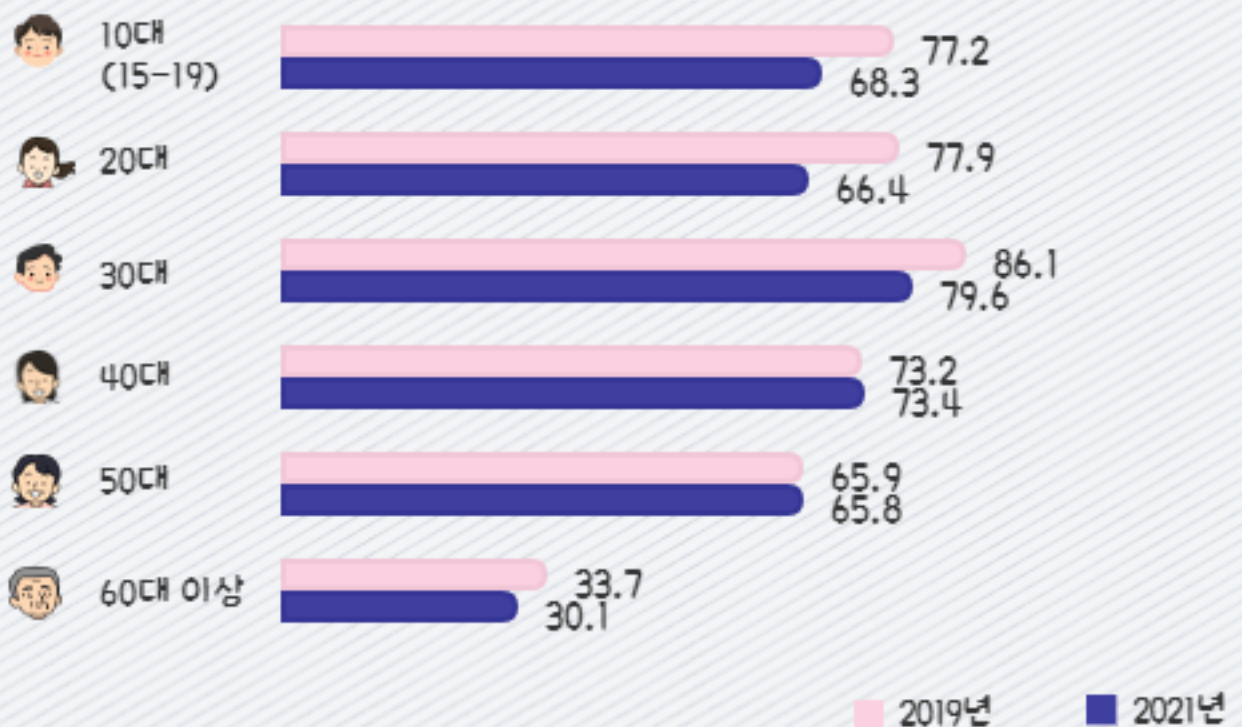
출처: 2021년 과천시사회조사
2019년 과천시사회조사

평일의 바쁨 정도 변화



연령별 평일의 바쁨 정도 변화

* 연령별 바쁜 사람(항상바쁘다 + 가끔바쁘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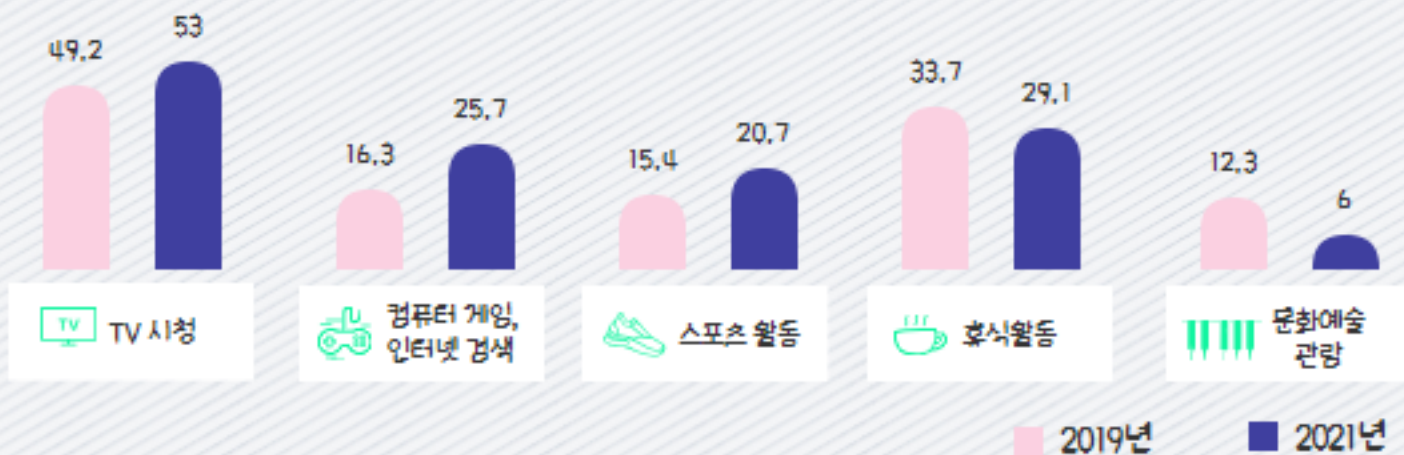


여가생활의 변화

출처: 2021년 과천시사회조사

여가시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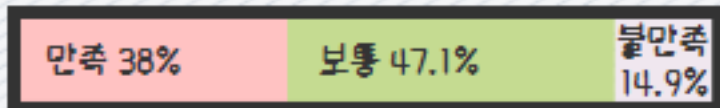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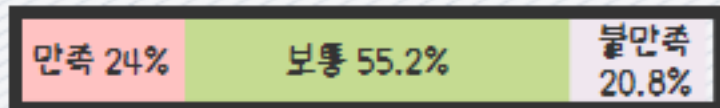
TV 시청,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스포츠 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휴식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비중 감소

여가생활 만족도

2019년



2021년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2019년

- 1 시간부족 42.5%
- 2 경제적 부담 32.2%
- 3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7.3%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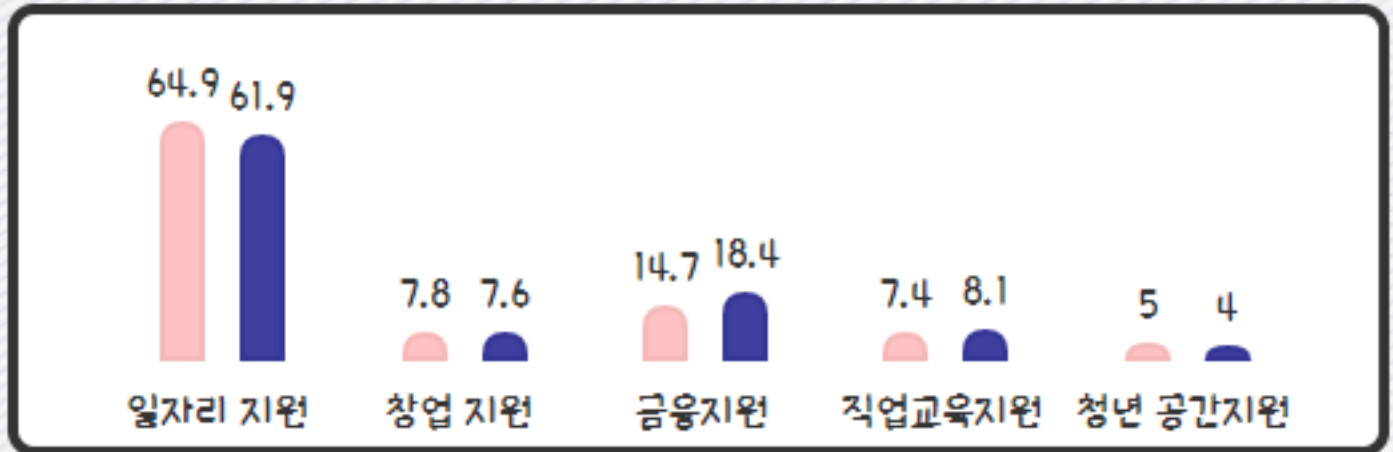
- 1 여가시설 부족 42.2%
- 2 경제적 부담 16.4%
- 3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5.1%

대상별 필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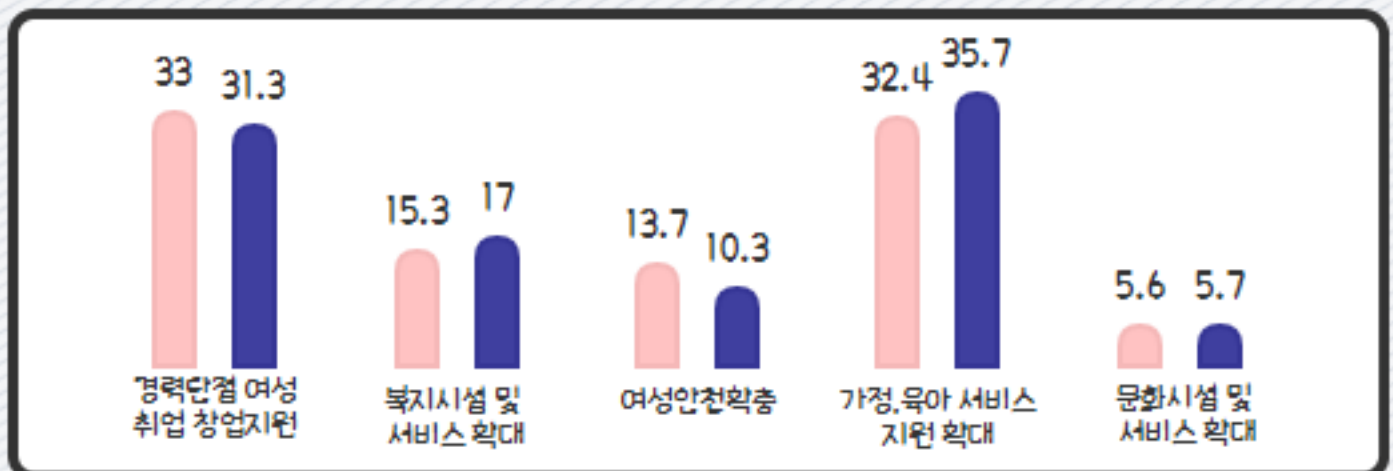
출처: 2021년 과천시사회조사

청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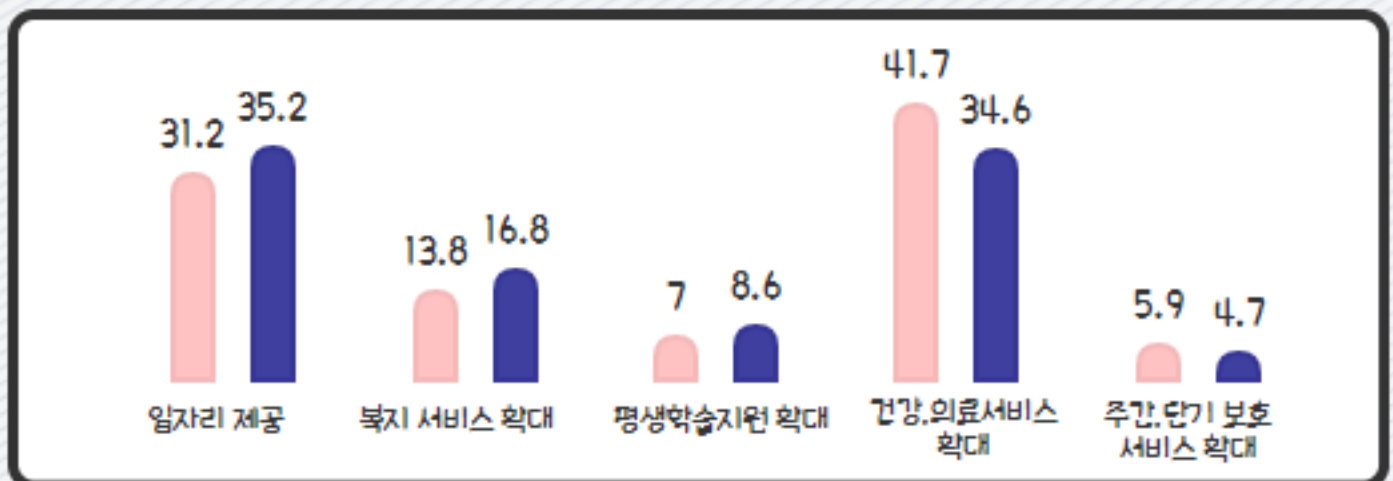
단위: %



여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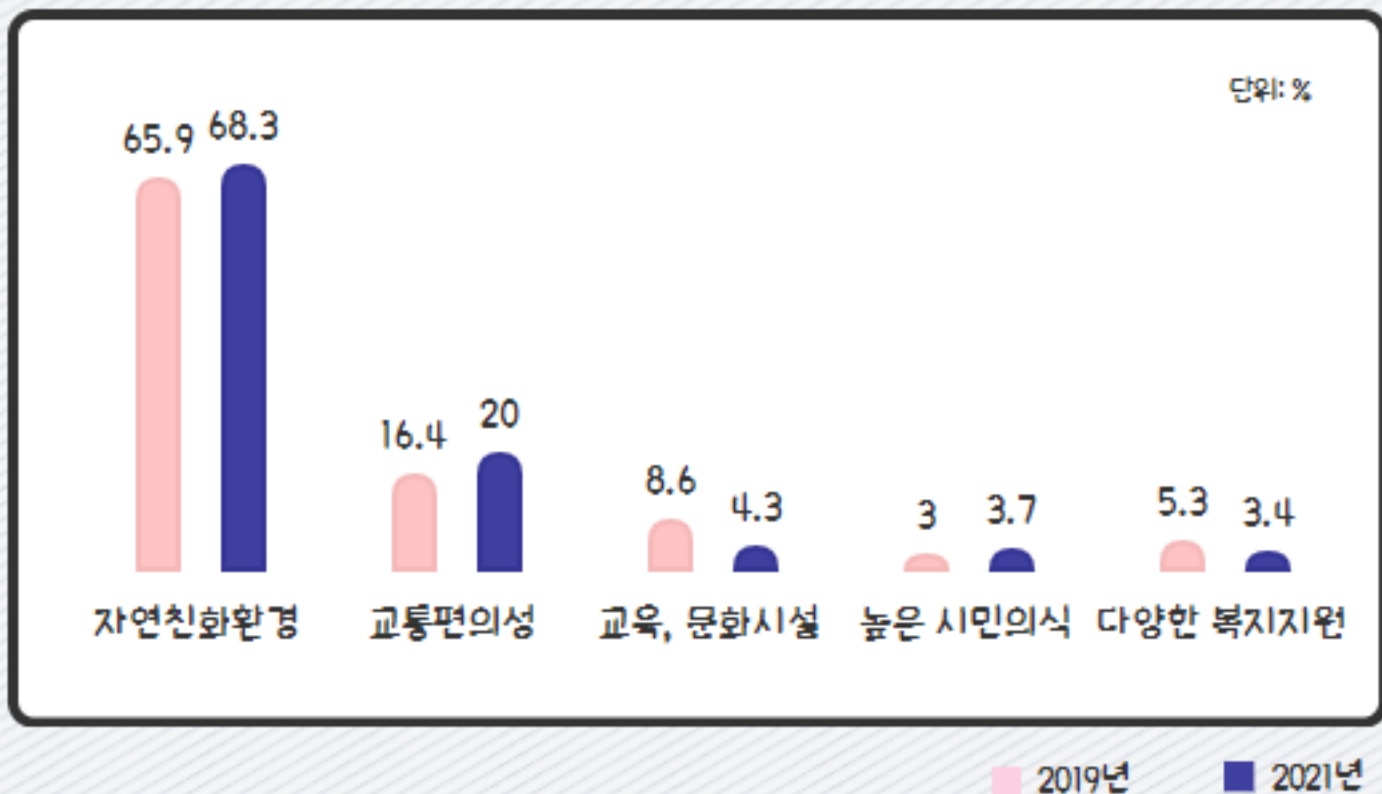
어르신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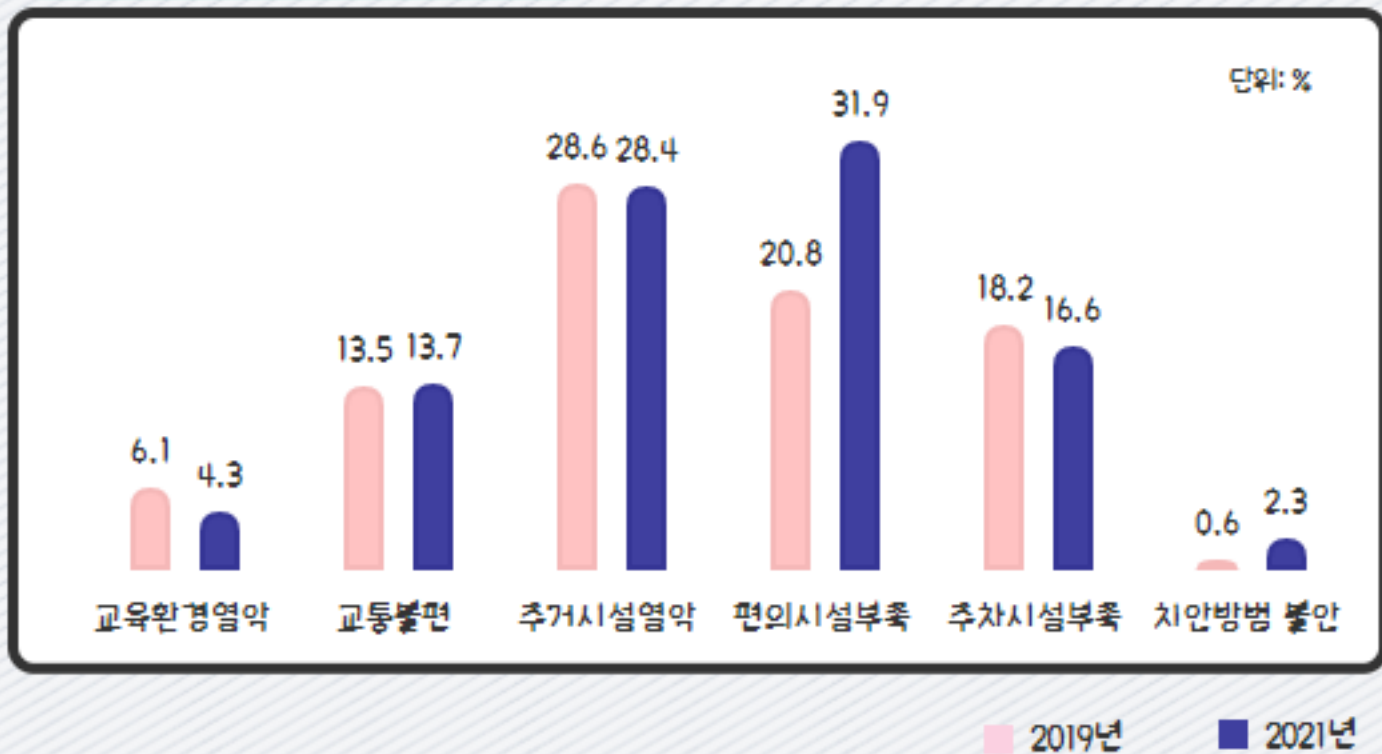
거주 만족 요인 변화

출처: 2021년 과천시사회조사

과천시 거주 만족 요인



과천시 거주 불만족 요인



Ubiquitous City에서 SmartCity로 변화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방향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 과장 김영혁



우리나라에서는 Ubiquitous City(이하 U-City라 한다)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편리한 도시 생활을 향유 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곧 신세계가 열리는 듯 하여 2007년 경부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사와 지자체에서 구축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감사원 홈페이지 참조)

필자는 2007년 8월부터 오산시 U-City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1월 현재까지 14년 이상을 U-City사업에서 Smartcity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중심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Smartcity사업은 이제는 과거처럼 꿈의 사업이 아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이 쉽게 접하는 버스정보시스템, 내 주택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 CCTV 카메라 등이 10여년 전에만 하더라도 각각 부서별, 기관별 관리 주체별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된 상황실에서 운영되었던 상황이 이제는 지자체별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유사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삶의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시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고려되어야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봐도, 스마트시티는 5년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스마트도시계획, 설계, 구축, 운영 등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려면 지자체 등 기업체 등의 인사팀에서는 계획적으로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하여야만,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경험으로 보았을 때 1~2년 업무 순환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는 혼자서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모든 관련부서 담당자는 적어도 5곳 이상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및 기업체 등을 벤치마킹을 하여야 한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보고 함께 추진 하여야만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 3대 핵심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프라,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중, 통합운영센터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구축을 하여야 한다.

과천시도 다행히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구축 될 예정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 상황실 등의 운영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과천시의 효율적인 센터가 운영되도록 계획 설계부터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제시한 3가지만이라도 실천 된다면 멋진 과천시가 될 것으로 기대 하여 본다.